

# 전남 시·군 부단체장 인사권 논쟁

## 현행, 해당 단체장 추천받아 도지사가 행사 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 단체장에 일임”

일선 시·군 공무원에게 선망의 대상인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에 대한 인사권 논쟁이 일고 있다. 현행 부단체장급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인 관할 시장·군수에 의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단체장 추천을 받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목포·여수·순천시 부시장은 본청 실국장급인 지방부이

사관(3급)에서, 나주시와 광양시를 포함해 나머지 군의 부단체장은 본청 과장급인 지방서기관(4급) 가운데 임명하고 있다.

이는 도와 일선 지자체간에 맺은 ‘인사교류 협약’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선 도지사가 인사권을 월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부단체장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고유의 ‘경리관’ 및 ‘전결권’과

인사 업무를 조정하는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여기에 동급인 도청 서기관(과장급)들과는 달리 별도의 전용차량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등이 지급되는 예우와 처우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부단체장이 현행 지방직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단체장에 독자적인 승진(영선) 등의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는 1 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도와 시·군의

인사 교류는 자치단체간 협력 증진과 종합 행정능력 배양으로 도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간 협력과 동반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단체장 자리를 도 공무원의 승진 이갈이 주창했다.

하지만 부단체장 인사권을 시장·군수에게 일임할 경우 정치인 단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광역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조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아 부단체장의 인사권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홍=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새해 새 설계

### 임성훈 나주시장

## “혁신도시 정주여건 완벽 조성”



“천년 목사골 나주가 오는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개청식을 시작으로 희망찬 나주혁신도시 시대의 장을 펼쳐겠습니다. 또 나주와 영산포를 가로지르는 영산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희망나주’ 발전의 견인차로 삼겠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2013년 계사(癸巳)년 시정 방향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 및 영산강의 고부가 가치화에 중점을 두면서 맞춤형 기업유치와 친환경·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 교육 경쟁력 향상과 생산적 복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올해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농수산식품연수원이 들어서고 내년에는 혁신도시 최대기관인 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파진흥원 등이 입주하면서, 공공기관 대부분의 이전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미래의 나주시민’으로 빠른 시일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필수인 교육환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유치원과 초·중·고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화병원과 명품 프리미엄 쇼핑센터의 유치 등에 힘쓰는 한편 상권이 혁신도시에 쏠려 공동화가 우려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조성공사가 조속히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나주시내를 가로지르는 영산강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사·문화·여가·레저를 한데 묶은 관광자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변 자전거길과 산책로, 꽃단지 등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일요일 ‘관’ 상설공연도 강변에서 펼치고, 왕건호와 황포돛배의 운항 구간을 회전에서 승촌보까지 확대하여 영산강변의 관광자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카누 등의 계류장 설치와 오토 캠핑장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갖추 계획이다.

또 천연염색 산업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친환경 염색센터를 완공하고 염료 대량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천연염색 상품을 개발하며, 염료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임 시장은 “지난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고용률 전국 상위와 인구 감소세 둔화 등 지역발전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평가하면서 “올 한해도 역동적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 시정발전을 이끄는 나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해 미래 일반산업, 신도 일반산업 등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

###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 친환경 염색센터 완공

### 투자유치 시스템 개혁

방안 마련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기업유치는 ‘보여 주기식’의 MOU 체결 방식을 탈피해 투자유치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 투자계획과 의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MOU는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행·재정적 뒷받침으로 나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해 미래 일반산업, 신도 일반산업 등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

/나주=손영철기자 ycsn@

## 담양소방서, 재활원 땃감용 나무 마련 봉사활동



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 직원들이 2일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서 직원들은 이날 재활원 거주

자를 위해 화목보일러 땃감용 나무를 마련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화재안전 점검 등을 중점 실시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세 일 글

## “고객에 봉사하는 조직 거듭”

### 조규정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내적으로 인화·단결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외적으로는 나눔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일 취임한 조규정(55)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담양도 특농이 가사업 등 모든 사업을 성실 시공으로 조기 준공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담양’을 만들어 담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 출신인 조 지사장은 1977년 영암 농지개발조합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봉사 감사실 청렴혁신팀장, 기반정비처장, 영산강 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혜자씨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전 북

### 전북도 6년 연속 100개 기업 유치

전북도가 6년 연속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유치한 기업은 총 789개, 고용 인력은 2만8548명에 달했다.

이는 도내 제조업 근로자(9만5300여명)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난해의 경우 123개 기업을 유치해 1만5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유치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24개)과 금속·철강(24개)이 가장 많았고, 기계장비·식품·화학(각 12개)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와 기계, 식품 등 전북도의 전략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전략산업 위주의 재편이 공고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올해부터는 유치기업의 투자 규모보다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기업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오목대에서 바라 본 전주 한옥마을을 설명

## 전주 한옥마을 ‘500만 관광객 시대’ 눈앞

### 지난해 493만명... 매년 100만명씩 증가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5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493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3500명이 방문했다.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02년 31만명에 그쳤으나 2006년 100만명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0년 300만명, 2011년 400만명을 차례로 돌파하며 매년 100만 명가량씩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무난하게 5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옥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의 여러 한옥마을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대규모 한옥촌인데다 풍성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옥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700여채의 한옥이 있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문화해설, 야간 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활성화돼

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 으뜸명소, 국제슬로시티 등에 잇따라 선정되기도 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한옥마을은 ‘사람이 실제 살면서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고 평가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한파 어장관리 주의보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잦은 폭설과 계속된 한파로 양식 어패류의 집단폐사가 우려된다며 어장관리에 주의보를 내렸다.

연구소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화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료공급의 횡수와 양을 줄이고 선도가 좋은 사료에 비타

민제, 영양제 등을 넣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식장 면적의 1% 정도에 보온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불필요한 어류의 이동이나 그물같이, 선별 등의 물리적 작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립도서관 ‘다독자’ 1위 지곡초 양원진

군산시립 도서관은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2012년 다독자’를 선정, 시상했다.

이번 선정된 다독자는 ▲초등부 양원진(지곡초·579점), 최민호(미장초·402점), 송정민(진포초·294점) ▲어린이와 중등부 최종원(중앙중·112점), 임해성(서

흥중·107점), 김진아(서흥중·98점) 등 6명이다.

시립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1년간의 도서 대출 권수와 독서통장 포인트를 합산해 최다 독점자 순으로 상위 3명씩을 선정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장류사업소 권재봉 소장 ‘근정포장’

순창군 장류사업소 권재봉(53·사진) 소장이 최근 정부포상인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권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장류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순창 장류사업이 350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과 고급화기술개발, 기능성

구명 등을 연구해 장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장류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사단법인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출범

사단법인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지역 귀농·귀촌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장학사업을 펼치고, 귀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군은 읍내에 친환경 귀농마을(100가구)을 분양하고 맞춤형 귀농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시책을 펼쳐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32가구를 유치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군산농기센터 ‘옥토진미골드’ 최고쌀 평가 농촌진흥청장상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품최고쌀 생산 시범단지가 농촌진흥청 주관의 최고 품질쌀 생산단지 평가에서 우수 단지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회현면 금광리 100ha(70여 농가) 규모로 명품 최고쌀단지(대표 품종)를 조성해 타라이스 재배기술을 적용, 최고품질의 쌀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품을 전량 회현농협(조합장 유창수)의 대표 브랜드인 ‘옥토진미 골드’로 출하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